

English Drama:신학과 예술의 만남



김다니엘 교수가 가르치는 English Drama 수업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수요일에 운영되는 강의이다. 그런데 단순히 노트필기만 하는 정적인 강의가 아니라고 한다. 종합예술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무대를 꾸미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큰 인기이다. 서울 한남동에는 김다니엘 교수가 운영하는 Imago Christi Studio가 있다. 이와 연계된 "Imago" Drama Production은 ACTS 학부생 50여명과 AIGS(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20여명이 수강하며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온 인류와 모든 사회적 영역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분의 몸(형상)을 이룬다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신학적 개념(창조, 타락, 구속, 화목, 연합)을 다양한 예술방식(음악, 댄스, 마임, 연기, 디자인, 테크노아트)의 무대연출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다. 곧 이 프로젝트는 인류와 언어와 문화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성경적-신학적 관점으로 표현하는 소위 "theo-drama"인 것이다.학기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강당에서 교내 학생들뿐 아니라 외부지역 관객까지 초청하여 공연을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김다니엘 교수는 "현대 문화 속에서 사는 학생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되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문화 영역을 신학적 관점으로 통합하여 관찰하며 학문/지식적으로 접근했던 성격을 예술/문화적인 시선으로 새롭게 접근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수업의 개념을 뛰어넘어 예술을 통하여 신학적 개념과 관점을 널리 전파하려는 English Drama, 신학적 도전과 더불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자량이 되길 기대해 본다.